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만물이 깨움집에서 깨어나 푸른빛을 더해가듯 힘찬 봄철에 한국여성  
재단이 (주) 조옷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 2005 Korea Big Women Fashion  
Show >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때저때는 여자들의 당당한 위풍 'Big is Beautiful'이란 캐치프레이즈  
가 전해 주듯이 '나아옴'과 '나아 아름답음'을 타인의 것을 동조모방하는것이  
아니라 대자연 그대로의 자기의 개성있는 멋스러움을 주체적으로 가꾸는 지인감  
입하고 위풍당당한 Big Women의 문화풍采를 기행되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치고 있는 가운데 몸짱, 엄짱이 되는 기풍을  
바비인형과 여드레인 여인의 외모에서 찾듯 나머지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에 매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외모적 사회현상과 풍경을 정화하고 '여성의 몸'  
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이번 여성문화 축제  
는 만물이 깨움집에서 깨어나듯 주부들마다 Big Women이 자기만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찾듯 깨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평등문화의 제행하며 피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  
은 이번 문화나눔의 행사를 통해 여성들이 여성이기에 그리고 남과 다른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삶의 지평을 열어내고 주부들 자기 스스로의 삶과  
자주롭고 멋있게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하  
도록 하겠습니다. Big is also Beautiful의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Big Women이 대이상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에 '만물이 깨  
우는 세화'를 영미 푸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공익 재단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성평등문화와 여성의 권리 향상 등  
사회적인 요구하는 다양한 여성을 지원하여온바 이들의 문화 향유에 주력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 조옷은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Big is Beautiful' 문화 향유의 핵심 기층을 핵심으로  
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문화 향유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사가 갖는 위상을 반영하여 (주) 조옷을 비롯하여 항상 여성  
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에 이용인, 동업을 하기 위해 용감하게 도전한 모데르  
니즘을 이룩하도록 하려하는 한국문화재단과 기업, 기획을 위해 투고한  
문예수필 그리고 이행사를 빛내 주시게 위해 반영하신 값비싼 여러분의 기  
원하는 시를 통해 이행을 거듭합니다.

문화향유에서 대량의 이 인내를 장려해 주시길. 언제나 활  
기찬이신대 저이상 이리함께